

## 코로나 시대 서울대 도서관의 성과와 과제

---

김 명 환

중앙도서관장, 영어영문학과 교수



2020년 1월 23일 나중에 코로나19로 명명되는 신종 감염병이 창궐하던 우한시를 중국 정부가 아예 봉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한 후 지금까지 인류 공동체는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1년 6개월 이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서울대 중앙도서관과 9개 분관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도서관 방역을 위한 추가 업무가 생겨나고 이용자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었다.

---

### 팬데믹 하의 도서관 정상 운영

9개 분관들은 출입 시의 발열 체크나 문진 등을 근무인력이 감당하기 어려워 소속 단과대의 결정으로 열람실을 폐쇄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은 확진자의 동선 탓에 일부 공간을 소독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한 경우는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국내외의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중에서 아마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생각되며, 도서관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성과로서 자랑스러워할만하다.

이는 교내 코로나19관리위원회가 2, 3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유행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 폐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 또 대학 책임자인 총장께서도 도서관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는 폐쇄를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는 지침을 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사실 도서관을 폐쇄하면 주거 여건이 나빠 집에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교나 집 근처의 카페 등에서 진종일 머물게 될 위험이 있고 그것은 방역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꼭 보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와서 읽거나 대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도서관 문을 연 것은 옳은 판단이었으며, 이를 뒷받침해준 사서, 행정직원, 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팬데믹 초기에는 초·중등학교든 대학이든 혹은 기업이든 모든 조직이 혼란과 공포를 겪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은 이 와중에 혐오 현상에 맞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 운운하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현상은 대학 캠퍼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도서관은 출입구에 부착한 방역 관련 공지문과 도서관 홈페이지의 팝업창에 신종 감염병에 특정 지역 이름을 붙이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에 어긋나며 혐오를 유발하는 잘못된 행동임을 알렸다. 공지문 하단에는 “우한 자요우(武汉加油)! 중국 힘내라!” “우리는 중국 및 발병 국가들에서 온 유학생, 연구원, 교수, 방문학자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까지 넣었다.

더불어 도서관은 비대면수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의 불편 해결을 최우선순위로 삼았고, 장애인 학생이 대출 신청한 책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가능한 개선책들을 실행했다. 또 장애인 학생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 학생 당사자나 관련 학생 동아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상시적인 상호 소통 채널을 만들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도서관은 적절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 조직 개편과 누적적자 해소, 리모델링 추진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외에 2020년에 도서관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조직 개편과 전자저널로 인한 누적적자 해소 등 예산 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조직 개편을 살펴보자면, 2개 과에서 3개 과로의 확대 개편은 도서관의 오랜 숙원이었고, 2016년 학교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본관에만 60여명의 사서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서정리과와 정보관리과의 2개 과로만 편성되어 각 과의 인원 과다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새로 생긴 기능과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대학 본부와 협의를 시작한 끝에 2021년 초부터 학술정보개발과, 학술정보운영과, 학술정보서비스과의 3개 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욱 주어진 업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10여년 동안 전자저널은 그 숫자와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도서관 자료구입예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구독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누적적자가 2020년까지 20억 이상 쌓였다. 단일 전자자료 패키지로는 가장 큰 엘스비어(Elsevier)의 ScienceDirect와 2021년부터 새로운 3년 계약을 체결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전자자료 문제에 대해 대학 운영진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전액 해소하고 2021년의 전자자료 구독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일부 얻어냄으로써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조직 개편과 누적적자 해소는 큰 성과이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만만찮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몇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가 불가피했으며, 이는 도서관 업무의 상당 부분

이 자동화되는 등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임무와 기능에 대처하려면 우수한 사서 인력의 총원과 훈련은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할 상시적인 과제이다. 또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전자저널에 대한 오픈엑세스(Open Access) 추진 요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국회, 연구지원기관, 학내 연구자들과 대학도서관이 협력하여 오픈엑세스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지와 해외 학술지에 대한 오픈엑세스 실현의 방향을 각각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과제 등 연구하고 실천할 일들이 쌓여 있다. 당장 2021년에는 대학도서관들이 협의를 통해 오픈엑세스로 가는 대원칙에 합의하고 오픈엑세스 선언을 하고 대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리라 본다.

그밖에도 건축한지 50년이 가까워 리모델링이 절실한 도서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도서관 직원들의 태스크포스팀 구성 및 깊이 있는 내부 논의를 통해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과 설계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졌으므로 앞으로 기금 모금 캠페인 등을 통해 학내외에서 관심과 지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